

한국어 주격조사의 통합적 분석*

서 장 국
(백석대학교)

Chang-Kook Suh, 2024. 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Language and Linguistics* 104, 25-44. Identifying five variational forms for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I suggest *ika* as the base form of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from which the appropriate variational forms are phonologically deriv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ranked constraints via Optimality Theory. This approach resolves the formalist problems related to the derivation of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and enables an integrated analysis predicting the variational forms of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Moreover, it comprehensively accounts for the variational differences found in one dialect (i.e., Yanbian dialect) as well as across Korean dialects.

Keywords: Korean Subject Case Marker, Dialectal Variation, Diminutive Suffix ‘-i’, Yanbian Dialect, Optimality Theory

주 제 어: 한국어 주격조사, 방언 변이형, 지소형 접미사 ‘-이’, 연변 방언, 최적성 이론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본 논문에 대해 유용한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세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조언이 본 논문의 체제와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1. 서론

한국어 주격조사는 기본적인 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표준 한국어 및 방언에서 ‘이’, ‘가’, ‘이가’, ‘-이가’(지소형 접미사+주격조사) 및 ‘∅’의 다섯 가지 주격조사 형태가 식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도출 및 분포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주는 형식적인 접근(formal approach)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주격조사 /이/와 /가/의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도 기술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교체는 전통적으로 음운론적 조건 하에서 규칙적이고 예측적인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즉, ‘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주어 뒤에 오고(예, 사자가)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주어 뒤에 실현된다는 것이다(예, 곰이). 그러나 이것은 보충법적 교체(송철의, 2000) 내지는 단순한 규정(stipulation)에 지나지 않는다(이병근, 1988:60). 따라서 이전의 이론들은 동일한 기본형에서 음운론적 도출을 통해 ‘이’, ‘가’, ‘이가’, ‘-이가’ 및 ‘∅’ 사이의 교체를 공식화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전통적인 음운이론의 가정 하에 화자가 기저형을 형태소의 발음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 기저형에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한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이 각각의 변이형들을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가’ 혹은 ‘가→이’로의 도출은 음운규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가’의 교체형이 어떤 동일한 형태소의 기저형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도출되는 과정을 형식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주격조사의 기저형으로 위의 형태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최전승 외 2010:67).

이혁화(2002)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음운 과정으로서의 교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송철의(2000)도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할 때, 교체의 내용이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비음운론적 교체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¹⁾

1) 이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최형용(2017)을 참조할 것.

1.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국어 주격조사 변이형의 통합적 분석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어 주격조사 ‘이/가/이가/-이가/∅’의 형태들이 기저형 ‘이가’에서 음운론적 제약과 서열을 통해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형식화하여 설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가’를 중심으로 국어 주격조사의 모든 교체형을 조사하여 분석의 토대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자료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고증하되 표준어는 물론 여러 방언들에서 사용되는 주격조사의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용례를 보여주는 연변방언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어 주격조사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주격조사 ‘이/가’의 교체형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교체형의 도출에서 발견되는 음운론적 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주격조사의 기저형을 ‘이가’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여러 변이형태들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저형 ‘이가’ 형태와 관련된 어근아이의 언어습득 과정, 역사적 사실과 방언에서의 용례 등을 통하여 이 형태가 국어 사용자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한 기저형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넷째, 기저형 ‘이가’를 가지고 여러 음운론적 제약과 이들의 서열을 통해 다양한 주격조사의 변이형들이 각 방언과 언어집단별로 어떻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를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분포상의 유형적 차이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주격조사 ‘이’와 외형적 형태가 같으면서 인접하여 나타나는 지소형 접미사 ‘-이’의 의미와 용법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고 음가가 같은 이 두 형태의 의미 및 음운론적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²⁾ 지소형 접미사 ‘-이’의 용법을 구체화하고 또 이 형태가 주격조사 ‘이’와 어

2) 통상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친근감, 애칭,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주는 지소형 접미사 ‘-이’가 우리말 이름과 외국어 이름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고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떻게 음운론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여러모로 의미 있고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어 주격조사의 모든 변이 형태를 조사하고 이를 형식화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 주격조사는 이전의 주장과 달리 기본형태가 ‘이가’로 설정되고 각 언어사용자 집단에 따라 최적성 이론의 제약과 이들의 서열을 통해 최적화된 다양한 주격조사 형태들이 체계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국어 주격조사 형태의 분포와 도출에 관련된 기존 연구의 공시적 및 통시적 특성과 형식적인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지소형 접미사 ‘-이’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다. 제 3장에서는 다양한 주격조사 형태를 보여주는 연변 방언을 중심으로 표준어와 여타 방언에서 발견되는 5가지 종류의 주격조사 변이 형태를 살펴보고, 이들 변이형에 대해 최적성 이론의 모델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국어 주격조사의 종류와 분포 및 문제점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와 ‘가’가 선행 주어의 음운환경에 따라 변이형태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학생’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이’의 형태로 나타나고 ‘누나’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가’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의 이름 뒤에서는 ‘-이가’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여기서 ‘-이’는 친애의 뜻을 나타내는 지소사(diminutive suffix)이지 주격조사가 아니며 ‘가’가 주격조사에 해당한다(예, 영숙이가 아프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연변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에서는 다양한 주격조사 변이형태가 보고되고 있다. 최화(2011:35), 김선희(2013:75-76)에 따르면, 주어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일 때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고, 표준 한국어와 달

리 개음절로 끝나면 주격조사 ‘가’가 생략되어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이가’형태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는 주격조사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물론, 연변 방언에서도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의 이름 뒤에서는 ‘-이가’의 형태가 사용된다. 반면, 전학석(1996), 장승환(2014)에 따르면, 연변 방언에서는 주어가 개음절로 끝날 때 ‘가’가 사용됨은 물론 개음절로 끝나든 폐음절로 끝나든 상관없이 주격조사로 ‘이’도 두루 쓰인다. 또한 주어가 폐음절로 끝날 때 ‘이’가 사용됨은 물론 주격조사로 ‘이가’가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연변 방언의 주격조사 변이 형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표준 한국어와 여타 방언에서 발견되는 주격조사 변이형태의 분포양상과 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 언어 내의 방언들은 물론 한 방언 내의 다양한 변이형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모델(McCarthy & Prince, 1993, 1995; Prince & Smolensky, 1993/2004)을 사용하여 형식적 접근(formal approach)을 통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주격조사의 기저형을 ‘이가’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1 주격조사 ‘이가’

주격조사 ‘이가’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강원도 방언, 함경도 방언, 그리고 중국 연변 방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 (1) ㄱ. 뱀이가 너무 징그럽다. (뱀이 너무 징그럽다.)
- ㄴ. 돈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도 ‘이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희승(1947), 전광현(1971), 홍윤표(1978, 1994), 최명옥(1980), 이익섭(1981), 천시권(1982), 이상규(1990), 김영황(1990), 박명동(1996),

김태엽(2001), 최화(2011), 김선희(2013), 장승환(2014)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여러 방언의 용례에 근거하여 ‘이가’의 형태를 주격조사의 한 변이형태로 인정하면서도 ‘이’나 ‘가’와 같이 독립적인 주격조사 형태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승(1947)과 최화(2011)는 ‘이가’의 ‘가’를 주격조사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으로 보았다. 홍윤표(1978, 1994)는 ‘이가’의 ‘이’는 주격조사이지만 ‘가’는 다른 문법 범주 형태(첨사나 보조사)라고 하였고, 최명옥(1980)은 ‘이가’의 ‘이’와 ‘가’는 모두 주격조사이고 이 두 형태의 결합인 ‘이가’는 복합격조사로 분류하였다. 천시권(1982)은 ‘이가’의 ‘-이’는 접미사이고 ‘가’는 주격조사라고 하였으며, 이상규(1990)에서는 ‘가’가 주격조사이고 ‘이’는 어간에 재편된 쌍형어간인 경우와 주격조사인 경우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김영황(1990)은 ‘이가’의 ‘가’는 후기에 생겨난 것임을 실증하며 강조의 뜻을 지닌 보조조사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김태엽(2001)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가’의 속성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이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주격조사의 한 형태이지만,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와 ‘가’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가’의 ‘이’는 주격조사이지만 ‘가’는 강조, 지정, 초점화 등의 담화적 의미기능을 지닌 덧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가’가 어린아이 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무표적 형태라고 하는 그의 주장과 상충된다. 어린아이의 ‘이가’는 강조, 지정, 초점화 같은 담화적 의미기능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의 주격조사의 형태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명동(1996)과 Suh(2021)의 주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가’를 독립된 하나의 주격조사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이 제안을 토대로 한국어 주격조사 형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가’형태에 대한 주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주격조사 ‘이가’의 구조

- ㄱ. 이(주격조사)+가(주격조사): 최명옥(1980), 이상규(1990)
- ㄴ. 이가(주격조사): Suh(2021), 박명동(1996), 최명옥(1980) - 복합격조사
- ㄷ. 이(주격조사)+가(첨사, 보조사, 덧붙): 이희승(1947), 최화(2011), 홍윤표(1978, 1994), 김영황(1990), 김태엽(2001),
- ㄹ. 이(접미사, 어간)+가(주격조사): 천시권(1982), 이상규(1990)

지금까지 논의된 주격조사 형태 ‘이가’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가’ 형태를 5가지 주격조사 변이형태(이/가/이가/-이가/∅) 중 하나의 독립된 형태, 즉 단일조사임을 제안한다(2ㄴ).

주격조사 ‘이가’가 단일한 주격조사 형태임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어린이의 언어습득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하다가 7-8세부터 ‘이가’ 대신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엽, 2001:6). 흥미로운 사실은 노년기가 되어서 다시 ‘이가’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가’가 한국인 화자의 심리에 실재하는 실재적 기저형임을 시사한다(Skousen, 1972, 1975; 정국, 1982). 통시적으로도 ‘이가’는 주격조사의 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해오고 있고 오늘날까지 여러 지역의 방언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인 관점에서도 ‘이가’의 존재가 입증된 셈이다.

2.2 지소형 접미사(diminutive suffix) ‘-이’와 주격조사 ‘-이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살펴본 주격조사 ‘이가’와 외견상 형태가 같아 보이는 또 하나의 주격조사 변이형인 ‘-이가’의 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가’의 ‘-이’는 통상 사람의 이름(성은 제외) 뒤에 붙는 지소형 접미사(diminutive suffix)로 불린다. 여기서 우리는 지소형 접미사 ‘-이’와 주격조사 ‘이’/‘이가’의 연결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소사 ‘-이’와 주격조사 ‘이’는 음성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들이 인접해 나타날 때 음운변화를 겪게 된다. 폐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뒤에서 ‘-이가’가 실현되고(예, /가인-이-이가/→[가인-이-∅가]).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뒤에서는 ‘-이가’가 아닌 ‘-가’가 실현된다. (예, /미자-이-이가/→[미자-∅-가]). 이 같은 결과는 모음과 모음이 인접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음운론적 제약(*VV)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 뒤에 오는 주격조사 ‘-이가’ 형태는 엄밀히 말해 ‘가’는 주격조사이고, ‘-이’는 주격조사가 아닌 지소형 접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을 포함한 공식적인 이름이 사용되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는 이름이 폐음절로 끝나도 지소형 접미사 ‘-이’를 붙이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 뒤에는 지소형 접미사 ‘-이’가 실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소형 접미사 ‘-이’가 원래 기저에는 주어이지만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음성 및 음운론적 제약 상의 이유로 도출과정에서 생략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예: /미자-이/→/미자-∅/→[미자]).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동일한 이유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이’가 생략되어 결국 최적형으로 [미자가]가 생성되게 된다(예, /미자-이가/→/미자-∅가/→[미자가]).³⁾

3. 국어 주격조사의 사용실태와 최적성 이론 분석

본 장에서는 국어 주격조사의 다양한 변이형태를 모두 보여주는 연변방언의 주격조사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어 주격조사의 모든 변이형태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1 연변 방언 주격조사의 사용 실태

앞서 언급한대로, 연변 방언의 주격조사 용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 최화(2011), 김선희(2013) 등에 따르면, 주어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일 때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고, 개음절로 끝나면 주격조사 ‘가’가 생략된다. 또한 ‘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가’는 주격조사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 간주된다.

3) 사람이 아닌 애완동물이나 기타 사물의 이름 뒤에도 지소형 접미사 ‘-이’를 붙이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가령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이름을 지칭할 때가 이에 해당 될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폐음절로 끝나는 반려동물의 이름에는 이미 지소형 접미사 ‘-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예, 콩이, 사랑이, 별이, 뽀이, 몽이, 셋별이, 햇님이, 햇살이 등). 따라서 이들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 같이 주격조사 ‘이’와 결합 될 때 동일한 음운현상을 보이게 된다. 추가로 사람 이름의 경우 우리말 이름이 아닌 외국어 이름에도 지소형 접미사 ‘-이’를 사용하는지의 문제도 흥미롭다. 가령 외국어 이름인 Jane, Thomson, John, Tom, Michael 뒤에 지소형 접미사 ‘-이’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3) 주격조사 ‘이’의 용례(최화, 2011:38-39)
 ㄱ. 어우야, 신경질이 난다야! (아, 짜증나!)
 ㄴ. 세새끼랑 염소라메 뿔이 잊지 개는 원래 뿔이 없그등.
 (소나 염소한테 뿔이 있고 개한테는 원래부터 뿔이 없거든.)
- (4) 주격조사 ‘이가’의 용례(김선희, 2013:76)
 ㄱ. 꽃이가 마이 피었다. (꽃이 많이 피었다.)
 ㄴ. 뱀이가 너무 징그럽다. (뱀이 너무 징그럽다.)
- (5) 주격조사 ‘가’의 용례(‘-이’(지조사)+‘가’(주격조사))
 ㄱ. 김철이가 니까 머이라 하데? (김철이 너에게 뭐라고 귀뜸하던?)
 ㄴ. 순남이가 너르 올라더라. (순남이가 너를 데려오라고 하더라.)
- (6) 주격조사 ‘∅’의 용례
 ㄱ. 저기 영희 온다. (저기 영희가 온다.)
 ㄴ. 새로 나온 영화 재미있대. (새로 나온 영화가 재미있대.)

한편, 전학석(1996), 장승환(2014)에 따르면, 연변 방언에서는 주어 가 개음절로 끝나는 폐음절로 끝나는 상관없이 주격 조사 ‘이’가 두루 쓰이며, ‘이가’를 ‘이’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 (7) ㄱ. 코이 떨어지겠다. (코가 떨어지겠다.)
 ㄴ. 발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 (8) ㄱ. 언제나 마괌이가 힘들지비. (언제나 마괌이 힘들지요.)
 ㄴ. 알구보이 선새이가 야르 데불이구 갔더라우.
 (알고보니 선생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더라오.)

그런데 연변지역에서 사용되는 동북방언의 주격조사 변이 양상에 대한 장승환(2014)의 연구는 주격조사의 용례가 통일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북방언 주격조사의 사용 특성 중 주격조사 ‘이’가 개음절 아래에서도 발음 되는 경우와 ‘이’를 ‘이가’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발견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설문내용('이/가') (장승환, 2014:180)

- ㄱ : 금연 파인 맵채오. ('이' 40%)
 ㄴ : 금년 파가 맵지 않소. ('가' 60%)

(10) 설문내용('이/이가') (장승환, 2014:180)

- ㄱ : 그 영갸이가 어전 구십이 지났겠소. ('이가 20%)
 ㄴ : 그 영감인이젠 구십이 지났겠소. ('이' 80%)

이 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별, 출생지별, 직업별로 분류하여 전체 설문대상자 330명을 대상으로 문항통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어가 개음절로 끝날 때 주격조사 '이' 사용자가 132명(40%), '가' 사용자가 198명(60%)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연변 방언에서 개음절 다음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고, '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내용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어가 폐음절로 끝날 때 주격조사 '이'의 사용자가 264명(80%), '이가' 사용자가 66명(20%)으로 나타나 폐음절 다음에서 이 두 주격조사가 변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 조선족의 빈번한 이동과 한중문화교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의 드라마, 대중가요의 유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표준 한국어의 사용이 보편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장승환, 2014:190).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변방언의 주격조사 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변이형태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1) 연변방언의 주격조사 형태⁴⁾

- ㄱ. '이': 입인, 코인
 ㄴ. '가': 파간
 ㄷ. '이가': 꽃이가
 ㄹ. '[-이]가': [순남인]간
 ㅁ. '∅': 영화∅

4) 여기서 제시한 예들은 연변 방언에서 통일되게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며 각각의 언어 사용자 집단별로 변이형태로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2 한국어 주격조사의 형태 및 형식적 도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표준 한국어와 여러 방언에서 발견되는 5가지 주격조사의 변이형과 그들의 분포패턴을 형식적인 접근(formal approach)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 간의 변이 양상 및 한 언어 내의 다양한 방언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최적성 이론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3.2.1 표준 한국어의 주격조사 분석: ‘이’, ‘가’, ‘-이가’

표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와 관련하여 ‘이’, ‘가’, ‘-이가’의 세 가지 형태가 주로 발견된다. 앞서 논의를 통해 주격조사의 기본형으로 ‘이가’를 전제로 할 때 이는 근본적으로 선행하는 주어의 음절 말 구조에 따라 주격조사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기저에는 모음과 모음이 인접하여 올 수 없다는 음운제약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VV: 모음이 인접하여 와서는 안 된다.). 또한 주격조사 ‘이가’중 한 요소만 취해도 어법상 용인되기 때문에 노력경제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CONOMY: 정보 전달이 가능한 한도까지 요소를 삭제한다.). 따라서 이 제약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준어에서는 주어가 폐음절로 끝나면 ‘이’가 붙고 개음절로 끝나면 ‘가’가 붙으며 ‘이가’는 배제된다. 이는 주격조사 기저형(입력형)의 요소가 표면형(출력형)에서 부분적으로 생략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 제약은 위반이 가능하게 된다(MAX-IO: 입력형의 요소는 출력형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표준 한국어의 제약과 서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2) *VV >> ECONOMY >> MAX-IO

위의 제약서열은 개음절로 끝나는 주어에 상응하는 표준 한국어의 주격조사를 효과적으로 산출해준다.

(13) /사자-이가/→[사자가]

/사자-이가/	*VV	ECONOMY	MAX-IO
ㄱ. 사자		*!	**
ㄴ. 사자이	*!		*
ㄷ. 사자가			*
ㄹ. 사자이가	*!	*	

개음절로 끝나는 주어의 경우, 주격조사는 ‘가’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약 *VV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모음이 연달아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음운제약 때문에 후보 (ㄴ)과 (ㄹ)은 제외 된다. 후보 (ㄱ)은 주격조사 요소를 과도하게 생략하여 정보 복구가 안 되어 ECONOMY 제약을 위반한다. 따라서 제약위반이 가장 경미한 후보 (ㄷ)이 최적형으로 산출된다.

한편, 위의 제약서열은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에 상응하는 주격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해 준다(예, /순자-이-이가/→[순자가]).

이제 폐음절로 끝나는 주어와 결합되는 주격조사 형태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분절음이 중간에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금하는 연속성제약(CONTIGUITY)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4) /사랑-이가/→[사랑이]

/사랑-이가/	*VV	ECONOMY	MAX-IO	CONTIGUITY
ㄱ. 사랑		*!	**	
ㄴ. 사랑이			*	
ㄷ. 사랑∅가			*	*!
ㄹ. 사랑이가		*!		

후보 (ㄱ)과 (ㄹ)은 둘 다 경제적으로 적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ECONOMY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한다. (ㄱ)은 정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생략하여 그리고 (ㄹ)은 생략 가능한 요소까지도 생략하지 않아 경제성 제약(ECONOMY)을 어기게 된다. 이제 두 후보 (ㄴ)과 (ㄷ) 중에서 둘 다 MAX-IO를 위반하지만 (ㄷ)은 중간 요소가 삭제되어 연속성제약인 CONTIGUITY를 어겨 탈락한다.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는 주어 뒤에는 주격조사 ‘이’가 선호된다.

고유명사 뒤에 지소형 접미사 ‘-이’와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된 형태의 경우도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최적형이 산출될 것이다(예, /민철-이-이가/→[민철이가]).

요약하건데, 표준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 ‘가’, ‘-이가’의 변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격조사의 입력형으로 ‘이가’를 제안 하였으며 최적성 이론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음운제약 및 제약의 서열을 제안하였다.

(15) 표준 한국어 주격조사 분석 요약

주격조사 입력형: ‘이가’

제약: *VV: 모음이 인접하여 와서는 안 된다.

ECONOMY: 정보 전달이 가능한 한도까지 요소를 삭제한다.

MAX-IO: 입력형의 요소는 출력형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CONTIGUITY: 분절음이 중간에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제약의 서열: *VV >> ECONOMY >> MAX-IO, CONTIGUITY

3.2.2 주격조사 ‘이가’, ‘-이가’

이제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강원도 방언, 함경도 방언, 그리고 중국 연변 방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격조사 ‘이가’ 및 ‘-이가’의 형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형태를 사용하는 방언 사용자들은 주격조사 입력형 ‘이가’를 충실하게 출력형에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MAX-IO 제약을 상위에, 그리고 *VV 제약을 하위에 두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MAX-IO >> ... >> *VV).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어가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주격조사 ‘이가’가 붙는다(예, 바다가, 사람이가).

그러나 고유명사 뒤에서는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이 경우에는 같은 음성 형태를 지닌 지소형 접미사 ‘-이’와 주격조사 형태인 ‘이’가 인접하여 나타남에 따라 OCP제약을 어기게 된다. 이는 위반할 수 없는 최상위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력형의 중의 하나가 출력형에서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로 인해 MAX-IO 제약을 어기게 되지만 제약의 서열상 OCP 제약 아래에 위치하여 OCP를 충족하기 위해 MAX-IO를 위반하게 된다(순자이가, 민철이가 등). 따라서 제약서열은 다음과 같다(OCP >> MAX-IO >> ECONOMY >> *VV).

위의 제약서열을 가지고 있는 방언에서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의 주격조

사 형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6) /순자-이-이가/→[순자이가]

/순자-이-이가/	OCP	MAX-IO	ECONOMY	*VV
ㄱ. 순자∅∅∅		**!	**	
ㄴ. 순자이∅∅		**!	*	*
ㄷ. 순자∅이∅		**!	*	*
ㄹ. 순자∅∅가		**!	*	
ㄴㅇ. 순자이∅가		*		*
ㅂ. 순자∅이가		*	*!	*
ㅅ. 순자이이가	*!		*	**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뒤에 지소형 접미사 ‘-이’와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된 형태의 경우, 먼저 후보 (ㄱ)은 ‘이이’가 나란히 인접하여 결정적으로 OCP를 위반하게 된다. 후보 (ㄴ), (ㄷ), (ㄹ)은 차상위 제약인 MAX-IO를 두 번 이상 어기게 되어 경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후보 (ㄴㅇ)과 (ㅂ) 중에서 (ㅂ)은 지소형 접미사 ‘-이’를 생략하여 MAX-IO를 위반함과 동시에 정보 복구가 불가능한 까닭에 ECONOMY 제약도 위반하게 된다. 반면에 (ㄴㅇ)은 주격조사 ‘이가’중 ‘이’를 생략하여 MAX-IO를 위반하지만 주격조사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략이기 때문에 ECONOMY 제약은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후보 중 (ㄴㅇ)이 최적형이 된다. 따라서 이 제약 순위를 가지고 있는 방언에서는 표준 한국어와는 다르게 모음으로 끝나는 고유명사 뒤에서도 주격조사 ‘-이가’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폐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주어와 결합되는 주격조사 형태의 경우도 앞의 개음절로 끝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주격조사 형태가 실현될 것이다(예, /민철-이-이가/→[민철이가]). 여기서도 상위에 위치한 MAX-IO 제약이 이러한 형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이’는 지소형 접미사이고 ‘가’는 주격조사에 해당한다.

이상의 방언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표준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주격조사 ‘이가’ 및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뒤에서 ‘-이가’의 형태가 사용되는 현상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이들 방언이 *VV 제약과 MAX-IO 제약의 관계에 있어서 표준 한국어와 서로 상이한 제약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2.3 주격조사 ‘∅’

앞서 언급한대로, 최화(2011) 및 김선희(2013) 등에 따르면, 일부 연변 방언에서는 주어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일 때 표준 한국어와 달리 주격조사 ‘가’가 생략되어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언사용자 집단에서는 *VV 제약이 최상위에, ECONOMY 제약이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VV >> CONTIGUITY, MAX-IO >> ECONOMY).

(17)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명사 주어의 경우, 주격조사는 물론 지소형 접미사 ‘-이’도 실현되지 않는다.

(17) /순자-이-이가/→[순자]

/순자-이-이가/	*VV	CONTIGUITY	MAX-IO	ECONOMY
㉠. 순자∅∅∅			***	**
㉡. 순자이∅∅	*!		**	*
㉢. 순자∅이∅	*!	*	**	*
㉣. 순자∅∅가		**	**!	*
㉤. 순자이∅가	*!	*	*	
㉥. 순자∅이가	*!	*	*	*
㉦. 순자이이가	*!*			*

후보 (㉠)과 (㉣)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최상위 제약인 *VV를 위반하여 경쟁에서 탈락한다. 후보 (㉠)과 (㉣)중에서 (㉣)은 CONTIGUITY 제약을 두 번 위반하고 MAX-IO를 또 두 번 위반하여 MAX-IO만 세 번 위반한 (㉠) [순자]가 결국 최적형이 되어 주격조사와 지소형 접미사가 모두 생략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주격조사의 분석에서 요구되는 여러 제약들을 가지고 방언마다 그리고 같은 방언 내에서도 언어집단마다 각기 다른 제약의 서열을 통해 다양한 주격조사의 변이형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설명해 보였다. 그간의 주격조사에 대한 분석이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표준어와 방언을 망라한 5개의 주격조사 변이형태에 대한 통

합적 분석을 형식적 접근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어 주격조사 '이/가/이가/-이가/ø'의 형태들이 기저형 '이가'에서 음운론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을 형식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국어 주격조사의 분석과정에서 미비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보완되었다.

첫째,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국어 주격조사 교체형의 도출과 관련된 분석상의 형식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표준 한국어와 방언에서 발견되는 주격조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즉, 기존의 이론에서는 체언말 음절구조의 조건에 따라 형태소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와 '가'를 주격조사로 설정하였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일한 기저형태 '이가'에서 음운론적 제약의 서열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최적형으로 산출되게 된다. 이들 변이형은 동일한 기저형에서 도출되므로 이론상으로 예측력을 지니게 된다. 부언하면, 이들 변이형들은 임의적인 보충법적 기술이 아닌 음운조건에 기반을 둔 제약과 제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식화되어 체계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될 수 있어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중국 연변 방언을 포함한 여러 방언 및 한 방언의 다양한 언어집단에서 발견되는 주격조사의 변이형태 및 용법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및 중국 연변 방언에서 발견되는 주격조사의 여러 형태들이 각 방언과 언어사용 집단에 맞는 최적형으로 예측력을 가지고 산출 될 수 있다. 가령, 중국 연변 방언에서는 통상 '이/이가'가 사용되고 '가'는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 주격조사 용법이 더욱 다양화 되어 여러 변이형들이 언어 소집단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석방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어린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가' 형태의 존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언어습득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기저형 '이가'를 사용하다

가 점차로 자기가 속한 언어집단의 주격조사 형태를 습득하여 나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부가적인 ‘이’와 ‘가’의 결합을 상정하고(즉, ‘이가’) 이어서 다시 ‘이’와 ‘가’로 분화하는 비직관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의 음운과정 설명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본 연구는 국어의 주격조사 체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를 별개의 형태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저에서 파생된 일종의 예측 가능한 변이형태임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이는 기존의 이론이 다양한 주격조사의 변이형태와 각 언어집단 내지는 방언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기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형식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독창적이고 진일보한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13) 연변방언연구. 『한민족 어문학』 64: 71-98.
- 김영환 (1990) 『조선어 방언학』 한국문화사.
- 김태엽 (2001) 주격조사 ‘-이가’에 대하여. 『우리말글』 21: 1-24.
- 박명동 (1996) 주격조사 ‘이가’. 『새국어교육』 53: 247-254.
- 송철의 (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287-311.
- 이병근 (1988)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탐 출판사.
- 이상규 (1990) 경북방언의 격어미 형태 구성과 기능. 『어문론총』 24. 경북어문연구학회.
- 이익섭 (1981) 『영동 •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 출판부.
- 이혁화 (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59-80.
- 이희승 (1947)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 장승환 (2014) 연변지역 격조사 사용실태 조사 연구. 『방언학』 20: 173-193.
- 전광현 (1971) 18세기 후기국어의 일고찰 - 음운언해를 중심으로-. 『전북대 논문집』 13.
- 전학석 (1996) 『조선어방언학』 연변대학출판사.
- 정국 (1982) ‘실제적’ 기저음운. 『어학연구』 18(2): 273-284.
- 천시권 (1982) 울진방언의 격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14: 1-13. 국어교육연구회.
- 최명옥 (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전승 외 (2010)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 최형용 (2017)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보충법적 교체인가? 『형태론』 19(1): 25-46.
- 최화 (2011) 중국 연변 지역어 주격조사의 식별에 관한 연구. 『배달말』 48: 35-64. 배달말학회.
- 홍운표 (1978) 주격어미 ‘가’에 대하여. 『국어학』 3: 65-91. 국어학회.
- 홍운표 (1994) 『근대국어연구 I』 태학사.
- McCarthy, J. J. and A.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Technical Report no. 32. Rutgers University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 McCarthy, J. J. and A.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 Beckman, L. Dickey and S. Urbanczyk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249-384.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2004)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alden: Blackwell.
- Skousen, R. (1972) On capturing regularities, *CLS* 8, 567-577.
- Skousen, R. (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The Evidence from Finnish and French*. The Hague: Mouton.
- Suh, Chang-Kook (2021) Dialectal variations of the Korean subject case markers ‘-i’, ‘-ka’, ‘-i-ka’ and ‘-ika’: an OT account. *Studies in Linguistics* 61, 39-60.

서장국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영어학전공

교수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e-mail: cksuh@bu.ac.kr

논문접수 : 2024년 4월 28일

수정완료 : 2024년 5월 16일

게재확정 : 2024년 5월 21일